

투철한 사명의식, 지속적인 경영혁신, 끈끈한 화합정신

사학연금관리공단

이번 탐방은 부산지부의 추천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찾았다. 이 곳은 연금 등 각종 급여의 지급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 조성된 연금자산의 운용 및 교직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영남회관을 방문하여 회사 현황, 방화시설 현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 | 오정규 협회 경영기획부 과장

회사 현황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1974년 1월에 설립된 이후 23만 6천여 교직원의 복지와 미래보장을 충실히 실현함으로써 국가의 백년대계인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연금관리업무와 자산운용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의 경우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추구하여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두고 교직원 대여, 채권 중심의 유가증권 투자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전주회관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강원도 양양의 오색그린야드호텔 운영 등 수익부동산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1996년 9월 개관한 영남회관의 경우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회관장 이하 직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임대율 98%를 유지하며 지방회관 중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다.

건물 특성 및 방화시설 현황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32,711㎡인 부산 소재 영남회관의 외곽은 곡선 및 초승달 모형의 각을 이루었는데 이는 부산의 상징인 바다와 파도를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항구도시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 용도는 사무실로, 볼링장, 예식장, 뷔페, 목욕탕,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부산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300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방화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피난정보를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방송설비가 전 층에 설치되었고, 유사시 초기소화를 위해 전 층에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으며, 지하 6층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과 지하 1층의 방재센터 내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되었다. 분말소화기는 공용부분을 포함하여 각 실별로 1개 이상이 비치되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피난시설로는 특별피난계단 2개소와 피난계단 1개소가 있으며, 4층 예식장의 객석유도등 12개와, 통로유도등 100개, 피난유도등 218개 등이 설치되었다. 특히, 피난유도등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출입구에 대형유도등을 설치하였고, 간이칸막이라도 구획된 공간에는 입구마다 유도등을 설치하는 등 인명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영진의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 높아

영남회관의 방화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이승옥 대리는 요즘 순찰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 행정 업무와 방화관리 업무를 병행하느라 비록 힘들긴 하지만 훈련에 직접 참여한 이후 방화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 입주업체 직원들이 예전과는 달리 그의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순히 따라주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커, 회관장 이하 73명의 자위소방대를 편성하



여 연 8회 이상의 기초훈련과 연 2회 이상의 자체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부산진 소방서와 연계하여 연 2회 이상의 종합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입주사 화기책임자와 소방담당자를 자위소방대의 소화반에 포함시켜 평소의 훈련에 참여시킴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훈련 또한 회관장의 직접 지휘 하에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규모로 실시하는 등 경영진의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위험관리에 대해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적인 방재기술을 갖추고 매년 무료로 실시하는 협회의 안전점검과, 회관 준공 이후 매년 화보협회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점검이 평소 방화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는 이승옥 대리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비한 내용을 그 즉시 개선하지 못하고 있어 몹시 아쉽다며, 매년 태풍 및 강풍에 의한 피해가 빈발하는 부산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풍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투철한 사명의식, 지속적인 경영혁신, 끈끈한 화합정신을 사훈으로 하고 있는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교직원 복지와 교육입국을 위한 참여 주체들의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신을 나타내는 심볼마크처럼 성공적인 주체로 성장·발전하길 바라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